

.....

해외현장연구 개인에세이

- 초고령사회 일본을 통해 그려본
우리나라의 모습 -

.....

행정학과 201421814 한승덕

I 들어가며

본인에게 있어 이번 해외현장연구 수업은 지적 성장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일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가 선정에서 우리 팀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라는 사회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여러 문제들을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을 해외현장연구의 대상으로 택했다. 본인 또한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를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번 해외현장연구 수업에 임했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 일본의 빈집 문제, 사회적 기업, 콤팩트 시티, 도시재생, 편의점의 고령친화서비스로 주제가 많이 바뀌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주제를 모색했다. 오히려 주제가 많이 바뀌면서 다양한 배경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다.

II 해외현장연구 수행 일지

첫째 날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세수를 하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길을 걸었다. 오전 7시, 인천공항에서 교수님과 팀원들을 만난 후에 간단한 아침을 먹고 비행기에 탔다. 전날 잠을 많이 못 자서 피로가 몰려왔지만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과 기대감에 부풀어 즐거운 마음이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초고령사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공항에서 여권 확인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버스 타고 가다가 호텔로 가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보안요원이 백발의 할아버지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잠시 상상해 봤다. 지금이야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이라는 수식어가 취업시장에 떠돌지만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일을 할 것이고, 본인 또한 '나도 저 나이가 되어도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호텔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교수님과 일본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미국, 독일, 중국, 영국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차원에서 이끄는 반면, 일본은 로봇산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그 이유를 일본 경제가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버틸만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며, 반대의 사례로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은 수출에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상이한 측면 또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텔이 위치한 시오미 역에 도착하니, 곳곳에 위치한 편의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규모도 꽤 커 보이는 편의점들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하나씩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일본이 왜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팀원들과 함께 도쿄 역 근처를 둘러보러 갔다. 퇴근 시간대의 도쿄 역은 직장인들로 붐볐으며, 일본이 정장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정장에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중에

는 본인과 비슷하거나 더 어려보이는 또래들도 있었다. 본인에게는 이것이 멋있어 보였다.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인 친구를 만나 물어보니 그는 오히려 일본이 굉장히 Boring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편의점 고령친화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외현장연구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비가 왔었지만, 날씨가 선선해서 괜찮았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우리는 A, B 두 팀으로 나뉘기로 했다. A 팀은 의약서비스와 개호서비스를, B 팀은 식품서비스와 배달서비스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였고, 본인은 A 팀으로 의약서비스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 미나토구에 위치한 패밀리마트 매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매장 규모가 매우 컸고, 약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손님이 너무 많고 인터뷰를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바빴다. 하는 수 없이 인터뷰는 뒤로 하고 거기 앉아계신 노인 한 분께 설문지를 부탁드렸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목적지인 로손 의약서비스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의약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해 찾아간 또 다른 곳은 미나토구에 위치한 한 로손 매장이었다.¹⁾ 그곳에는 약국과 편의점이 같은 공간에 있었고 창구만 분리되어 있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 인터뷰는 본인이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기다리는 손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장 문을 열었다. 먼저 거기 계신 약사 분께 간단한 일본어로 영어가 가능한지 물어봤다. 조금 밖에 못하지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편의점 고령친화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서면 인터뷰를 부탁드렸다. 그 분은 잠시 보스의 허락을 맡으러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니, 밝은 표정으로 나오시면서 약국점장님과 자신이 서면 인터뷰를 해줄 수 있으니 내일 다시 찾으러 오라고 하셨다. 첫 번째 성공이었다. 너무 기뻐서 가방에서 김을 꺼내 원래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로 드렸다.

다음으로 개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손의 한 매장을 찾아갔다.²⁾ 이 편의점은 개호서비스와 의약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곳이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한쪽에서 노인분들이 전문강사와 율동과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인터넷으로만 들어봤던 편의점 개호서비스가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했다. 팀원 중 한명이 의약서비스 창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러 가고, 본인은 개호프로그램이 끝난 후 진행자를 찾아가 인터뷰를 부탁했지만 본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팀원들과 함께 로손 본사로 직접 찾아갔다.³⁾ 리셉션 데스크에서 영어가 가능한지를 묻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준다고 했다. 그렇게 한 30분을 기다리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나와서 친절하게 응대 해주었다. 본인은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인터뷰 허가를 요청했다. 직원은 담당자를 찾으러 가더니, 이내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메일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와 호텔 내에 있는 목욕탕에 몸을 녹이니 그곳이 천국이었다.

셋째 날

셋째 날,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스가모'라는 노인 밀집 지역에 설문지를 돌리러 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관광명소와 같은 모습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서비스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직원들과 함께 주거지역 쪽으로 걸어갔다. 길에서 만나는 노인들

1)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야마 트러스트 타워점

2) 도쿄도 분쿄구 센다기시노바오리주도점

3)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사키

에게 설문을 부탁했으나, 모두들 응해주지 않았고, 다들 지쳐만 갔다. 이에 더해 로손 본사에서 인터뷰를 허가해줄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 내용으로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만큼 고령서비스에 대한 수요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절망적이었다. 조원들과 함께 둘째 날 방문하였던 개호 서비스, 의약서비스를 같이 하는 편의점에 가서 의약서비스 인터뷰지를 회수하러 갔다. 의약서비스 인터뷰지가 실패하고, 조원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노인분들에게 설문지 3건을 들고 찾아가 설문지 작성을 부탁드렸다. 물론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다만 설문지를 부탁드리기 위해 배운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로 진심을 다해 부탁드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김을 먼저 나눠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결국 진심이 통하나 보다. 노인 분들이 설문지 작성에 응해주었고, 개호 상담원과 편의점 점주도 옆으로 와서 설문 문항을 읽어주면서 노인 분들의 설문지 작성을 도와줬다. 그렇게 해서 얻은 설문지 3장은 본인에게 있어 가장 뜻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기억된다.

다음으로 노인센터를 찾아갔다. 노인센터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릴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가 싶더니, 이내 한 직원분이 우리를 3층으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50명은 되어 보이는 많은 노인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중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계신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한국의 김을 나눠드리면서 설문지를 부탁드렸는데,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그곳에서는 총 7부의 설문지를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둘째 날 승낙 받았던 로손 약국 서비스의 인터뷰지를 회수하러 갔다. 그때 부탁드렸던 약사 분에게 설문지를 회수하러 왔다고 하니 바로 꺼내서 돌려주셨다. 설문지를 받아보고 살펴봤는데, 2부 모두 매우 상세하고 자세한 응답이 담겨있어서 깜짝 놀랐다. 너무도 기쁜 마음에 가방에 있던 김을 더 드리며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드렸다.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걸까, 괜히 마음이 몽클해졌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아도 눈을 마주치고 진심을 전달한다면 언어를 뛰어넘어 교감할 수 있음을 해외현장연구를 통해 깨달은 순간이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유난히도 더운 날이었다. 이날 우리는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배달서비스의 인터뷰를 얻기 위해 세븐일레븐의 세븐밀 서비스를 찾아다녔다. 아침 일찍 이리야역에서부터 아사쿠사역까지 쉴새 없이 돌아다니며 세븐일레븐 5곳을 찾아갔으나 별다른 수확이 없었다. 곧이어 미나미센주역으로 갔다. 본인은 인터뷰지 2장 중 1장을 성공하였고, 다음날 2시에 와서 받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미노와 역에서 흩어져서 인터뷰지를 돌렸으나, 별다른 수확이 없이 돌아와야 했다.

그렇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본인 친구를 만나러 도쿄역으로 향했다.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할 때,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었었는데, 마침 이날 저녁에 시간이 맞아서 간단히 식사를 함께 했다. 친구들이 자기 나라에 왔으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겠다고 해서 일본의 '탄'이라는 음식을 맛보게 되었다.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김을 선물로 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는 내 뒤통까지 선뜻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손님 대접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올해 겨울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섯째 날

전날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미나미 센주역 근처의 세븐일레븐으로 찾아가 인터뷰지를 회수

했다. 회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인들이 초등학생들을 인솔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았으며, 고령사회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다시 한 번 상상할 수 있었다.

이 날은 사실상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팀원들과 교수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시부야의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Ⅲ 유심히 관찰한 일본 사회의 모습

해외현장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나라의 특색과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배울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도쿄에서의 5박 6일은 일본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은 본인이 일본에서 유심히 바라보며 관찰한 것들이다.

1. 일본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정장차림이었다. 본인과 비슷한 또래거나 더 어려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일본에서는 취업 복장이라고 해서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도 오로지 검은색 정장만 입고 온다고 한다. 이는 일본 사람들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된 후에도 교복과 같은 것들을 편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본인은 항상 셔츠에 슬랙스를 입어서 인터뷰나 설문지를 부탁할 때 보다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래서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다.

2.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도 비싸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가게가 대부분이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 편의점을 인터뷰하러 다닐 때마다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고령화로 인한 구인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4. 일본은 어디를 가나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시민의식은 우리나라가 정말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우리나라에는 중국어, 일본어 안내가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어 안내가 대중교통은 물론 식당 곳곳에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6. 자전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자전거가 바구니를 단 실용적인 형태였다. 한국에서는 바구니를 다는 것을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일본 사람들은 실용을 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7. 일본은 흡연구역에 투명한 칸막이가 항상 구비되어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Ⅳ 마치며

해외 현장연구를 생각하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누군가는 일본어를 하지도 못하면서 설문지를 돌리는 우리가 무모하다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에 미루어볼 때 이러한 경험은 분명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직접 부딪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많은 깨달음들을 안겨줄 것이며 어쩌면 이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이 배우고, 보다 많이 생각하고, 보다 많이 부딪치다 보면 훗날 돌이켜 볼 때 스스로가 더욱 성장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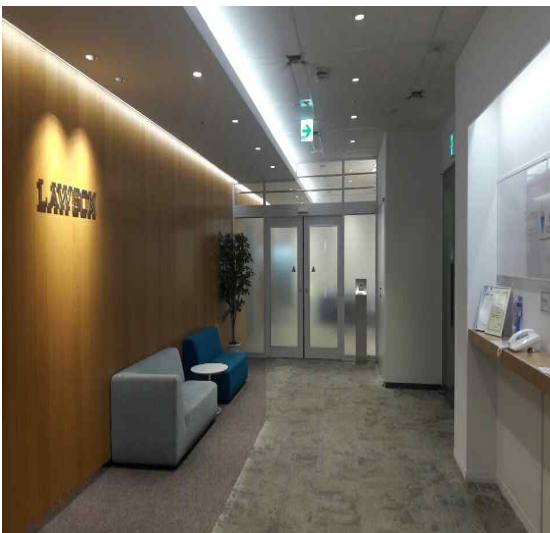
V 부록



▲ 지하철에서 근무중인 노인 안전요원



▲ 패밀리마트 미나모



▲ 로손 본사 방문토 드러그



▲ 노인센터 방문



▲ 코쿠시,아카리와 함께



▲ 초등학생들을 인솔하는 노인분들